수원 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0. 9. 20(가해) | 제1909호

'빛을 향하여'
『정하상 바오로 성인』 심순화 카타리나 作

+ 제1독서
  지혜 3,1-9
+ 제2독서
  로마 8,31ㄴ-39
+ 복음
  루카 9,23-26

입 당 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음성지원QR코드

발행 천주교 수원교구 **발행인** 이용훈 주교 **편집** 홍보국.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 031) 242-8081 카카오채널 '천주교 수원교구' http://www.casuwon.or.kr

"이름 모를 순교자여. 새 빛 되소서."

"순교로 빛을 밝힌 103위 성인. 오롯이 바친 넋에 새순이 돋아. 순례의 교회 안에 큰 나무되니, 님 따른 그 생애가 거룩하여라. 영원히 받으소서. 희망의 찬미 찬송을. 이름 모를 순교자여, 새 빛 되소서."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1절)

이 성가의 가사 중에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모를 순교자여, 새 빛 되소서."라는 1절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마땅히 103위 순교성인들을 기리며 기념해야 하겠지만, 이들과 더불어 아직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인으로 불리지 못하는 분들과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 역시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피 흘려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평생 박해를 피해 타향을 전전하며 갖은 고생을 다 하다 일생을 마친 분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신앙을 위해 헌신하신, 넓은 의미로서의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순교자로서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거나 그 한순간의 결단 때문만이 결코 아닙니다. 백 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또 최후의 순간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복음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라고 살고 싶은 욕망이나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국 하느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처럼,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지혜 3,5)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지혜 3,7)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이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게 한 순교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기념하는 103위 순교성인들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전수한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빛이 되는 자랑스러운 '순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 전현수 마티아 신부(교구 성소국 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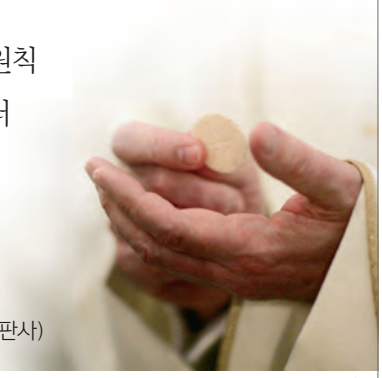
하루에 여러 번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체성사는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께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지나친 열성으로 인해 영성체를 수량화하고 도구화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만 예외로 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성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1963) 반포 이후, 미사를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점차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탄과 부활의 자정 미사에서 영성체한 신자들은 그날 낮미사에서 다시 영성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같은 날 '저녁 주님 만찬 미사' 때 영성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가 다시 시행되고 나서는, 토요일 오전 평일미사 때 영성체한 신자도 같은 날 저녁 주일미사 때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1973년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에서는 허가 범위를 더 넓혀 세례·견진·병자·서품·혼인미사와 성당 축성미사, 장례미사 등에도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 1983년에 새로 편찬된 교회법전 917조는 위의 다양한 허가들을 간소화하여,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매번 다시"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다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은 하루에 두 번은 영성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며(사목지침서, 79조), 임종하는 이에게는 노자성체가 언제나 허락됩니다.

두 번째 영성체가 허락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하루 한 번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일반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의 수적 남용이나 건전치 못한 집착을 버리고, 균형 잡힌 성체 신심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하루에 두 번까지만 성체를 모셔야 할 것입니다.



글 | 이규용 유스티노 신부(교구 제1심 법원 판사)

당신 옆에 우리가(1)

- 어떻게 자살 시도자를 도울 것인가? -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의 필요성

자살 시도자는 다시 자살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내에 12~20%가 자살을 재시도하고, 재시도로 사망할 위험이 1년 내에 1~3.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자살기도를 하여 사망할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지침

1 **자살 시도자와 신뢰 협력관계를 유지 :** 상담자는 안정성과 신뢰감을 제공하면서, 무비판적인 태도로 의미 있는 상담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자살 시도자의 안전기지 역할과 안전전략을 수립 :** 자살 시도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 주거나, 몇 년 간 표준화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는 것이 자살위험을 줄여주고,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3 **자살은 질병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짐 :** 자살을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자살 시도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자살시도의 목적은 정신적 고통에 의해 지배 당하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4 **자살위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자살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삶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생명을 살리는 자살예방 지침서

도움 받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02) 318-3079 www.3079.or.kr

《우리들의 하느님》
유희석 신부의 내 생애의 도서

저는 수원교구 신자들에게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꺼번에 뒤돌아보게 하는 굉장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비단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여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상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한 울림이 있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박하지만 철저하고, 신심을 내세우지 않지만 아주 신앙적인 책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신학생들에게 일독을 자주 권하곤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정생은 개신교 신자이기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문학계를 비롯한 사회 저변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인이 되신 지금도 여전히 그 뜻을 기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개신교를 두둔한다거나 편향적인 자세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신교인의 잘못된 생활을 나무라고 질책을 퍼부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글을 읽다보면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의 꾸밈없고 숨김없는 순박한 영혼 앞에 옷매무새를 고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너나할 것 없이 탐욕에 물든 세상이다 보니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위로를 받거나 위안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촌철살인의 정신으로 삶을 사는 이들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책과 이 책의 저자를 통하여 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한 모금의 위로를 얻거나 사제적 삶의 지속적인 샘터를 찾아내곤 합니다. 어느 종교인에게서도 그만한 삶을 산 이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책은 최근의 이슈를 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환경과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좋은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이 책은 종교를 넘어 한 인간의 대서사시로 여겨도 무방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의 신앙도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속 좁은 신앙에서 폭을 더 넓히라고, 알맹이로 꽉 찬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제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중친화적인 신앙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가 바라는 삶은 현실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원한다."

가정 제례 예식

-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

※ 코로나19로 인해 성가는 생략할 수 있다.

준비 사항

상차림 :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 등을 준비한다.

시작 예식

제례 준비가 끝나면 가장은 다음과 같이 제례의 시작을 알리며 예식을 진행한다.

지금부터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성호경

시작 성가 : 자유롭게 선택한다.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中)

시작 기도 : 가장은 오늘 거행하는 제례의 취지를 설명한 후 기도를 바친다.

잠시 침묵 후에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 (　　)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본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마태 5,1-12, 요한 14,1-14, 로마 12,1-21, 1코린 13,1-13, 에페 5,6-20)

가장의 말씀 :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 위령 기도(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비오니 주님의 성인들과 뽑힌 이들 반열에 들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각각 한 번씩 바치고 다음 기도로 위령 기도를 마친다.

＋ 주님, (　　)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　　)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마침 예식

마침성가 : 자유롭게 선택한다.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中)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특별 주년 기념
생태계와 기후회복을 위한 탄소 제로 연중캠페인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

둘

쓰레기 제로 실천하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져 유해물질과 엄청난 온실가스를 방출합니다.

종이컵,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휴대용 개인 컵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배달음식을 삼가고 먹을 만큼만 요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실천합시다.

〈찬미받으소서〉 기후행동 챌린지 인증샷 캠페인

〈찬미받으소서〉 특별 주년을 맞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수원교구 기후행동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인증샷을 SNS에 **#수원교구기후행동챌린지**와 함께 올려주세요. 매월 추첨을 통해 면마스크와 필터 10매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당첨자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주최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주관**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총대리 이성효(리노) 주교 영명축일

9월 23일은 총대리 이성효(리노) 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주교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도록
교구민들의 정성어린 기도 부탁합니다.

교구

동백성루카병원 축복식

때 : 9.26(토) 10:30
미사 : 교구장 이용훈 주교
총대리 이성효 주교
교구장대리 문희종 주교
☎ 031) 548-007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분당성마태오 본당 설정 25주년 기념 미사

때 : 9.27(주일) 11:00
미사 : 교구장 이용훈 주교
☎ 031) 711-4268

미사

들꽃마을 수원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때 : 9.21(월)
☎ 054) 955-4133~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성추모공원 2020년 추석 미사

때 : 10.1(목) 11:00, 14:00
곳 : 안성추모공원 성당
돌아가신 모든 분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 031) 672-4276 안성추모공원
※ 코로나19로 일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9.21(월) 10:00. 송탄 성당
9.23(수) 10:00. 성남동 성당
☎ 02) 3673-2525

피정

성경통독 성체신심 치유 피정

때 : 10.9(금)~12(월), 10.23(금)~26(월)
곳 : 수유동 성 도미니코 수도원
지도 : 노경덕 신부
비용 : 36만 원(효소비 포함)
☎ 010) 9363-7784 대구가톨릭교수회

카타리나 피정 집

곳 : 횡성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대상 : 개인, 소그룹(자체취사)
☎ 010) 9715-1203

교육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평신도의 신앙과 삶

때 : 10.13~11.17(6주간 매주 화)
10:00~12:00
곳 : 수원교구청 지하 대강당
비용 : 8만 원
내용 :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오병이어, 사랑의 힘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 031) 221-6481 수원CLC

모집·기타

2021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 : 9.23(수)~28(월)
모집 :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신학대학
전형 :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반영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 032) 830-7022

교구 주일에는 「**교구 특별사업비 지원 특별 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 : 9.23(수) 9:00~28(월) 18:00
모집 :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 성직자 추천 전형 등 8개 전형
☎ 051) 510-0705 권혁민 입학사정관

2021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 : 9.23(수)~28(월)
모집 :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 043) 270-0100

2021년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6기 교육생 모집

때 : 2021년 3월 개강
자격 : 협회에서 전례3급 수료예정 이상자
접수 : 선착순 50명
신청 : http://cafe.naver.com/floralliturgy
☎ 010) 6278-2488, 010) 3848-6838

상담소

안산생명센터

때 : 화~토 10:00~17:00
곳 : 안산가톨릭회관 1층
내용 : 은둔형외톨이 상담 및 무료 법률 상담 등
방법 : 전화, 방문, 이메일
☎ 031) 365-4770~2
aslife@casuwon.or.kr

성라파엘 상담소

때 : 월~금 10:00~17:00. 주말 상담 가능
곳 : 중앙 본당 내 1층
내용 : 개인 심리 상담, 부부 및 가족 상담
방법 : 1:1 면접 상담
☎ 031) 446-7573

가톨릭 여성 상담소

때 : 매주 화~금 11:00~16:00
내용 : 가족 갈등, 커플·이성 문제 등
☎ 031) 502-0667~9

채용 및 봉사자

채용

본당

대야미 본당 사무원 / 9.30(수)까지
동백성요셉 본당 관리장 / 채용시까지
동수원 본당 관리장 / 채용시까지
청계 본당 사무장(원) / 채용시까지

'어부들' 봉사자 모집

대상 : 율동 봉사에 관심 있는 신자
활동 : 초등부 노래·율동 개발 및 교육(연수)
제1대리구 청소년2국
☎ 031) 8019-5397, 010) 4999-1416

'이오스'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는 신자
활동 : 가톨릭 레크리에이션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피정) 등
☎ 031) 8019-5397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언어 :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학술 : 신학, 철학 및 인류학
문서 : 컴퓨터, 디자인, 편집, 홍보
☎ 031) 333-9704, 010) 3230-3997

성지순례

제주면형의 집 피정

때 : 10.7~10, 10.26~28, 10.31~11.2, 11.11~13, 11.16~19, 11.22~25
내용 :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02) 773-1463, 064) 756-6009

국내 성지순례

때 : 10.14(수)~15(목)
사당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 07:30 출발
곳 : 부산교구 1박 2일
비용 : 15만5천 원(우등버스)
바오로성지순례
☎ 010) 9200-3532

8인부터 시작하는 성지순례

전국 167개 성지순례 진행
제주 3일·4일 성지순례
순교성인, 박해사별 성지순례
비안네성지순례
☎ 031) 706-9175

수원교구 카카오톡 채널

- 교구소식
- 수원주보
  (소리주보 : 주보 상단 재생 버튼 클릭)
- 전례 관련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채널 QR코드 ▶

수원교구 채널 추가하는 방법

① 카카오톡 실행
↓
② 검색창에 '수원교구' 입력
↓
③ 채널 확인

성 소 모 임	일 시	장 소	비 고	문 의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9.25(금) 17:00~27(주일) 13:30	여주 피정의 집	대상 : 35세 이하 비고 : 2만 원	010) 9816-0072
한국외방선교회	10.4(주일) 11:00	성북동 본부		010) 8715-2846

수원교구
사목월간지

외침

10
OCTOBER 2020
Vol.112

02 여는 글 묵주 알을 굴리며
04 믿음의 숲에서 만나다
12 내게 맞는 신앙공동체를 찾아서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8 외침특강 행동하는 평신도
28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시선여행 · 상촌 본당
44 마리아야 마리아야 · 간음한 여인
48 미치도록 궁금한 신앙 이야기 · 말씀과 지혜 ⑧
54 유럽의 도시와 교회사 이야기 · 비텐베르크
62 렉시오 디비나 배우기
66 이근덕 신부의 동양철학 묵상 · 네 가지 경계
70 기도생활을 위한 마음 · 침묵
72 키워드 성경 · 예수님과 여인들
76 청년사회 슬기로운 직장생활
84 청소년, 도담도담 · 초지동 본당
104 이달의 핵심교리 · 묵주기도
107 궁금해요 가톨릭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료 월 4,000원(1년 40,000원)

문의 T. 031-457-6220 | cecc@casuwon.or.kr

※ 이제 「외침」을 집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호 맛보기
QR코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성 김대건 신부가 사제가 되기 전에 쓴 21통의 편지글 모음입니다. 이 글들은 그 당시 조선의 국가 정세와 교회 사정 및 민생 상태에 관하여 스승 신부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옮긴이 : 정진석 추기경
가　격 : 6천 원
출판사 : 바오로딸
문　의 : 02) 944-0807

한국 순교자 103위 성인전 상·하(개정판)

그동안 교회사의 발굴로 새롭게 밝혀진 부분들을 바로잡고 첨가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103위 성인 시성식 강론도 추가하여 수록했습니다.

저　자 : 김정진
가　격 : 각 1만8천 원
출판사 : 가톨릭출판사
문　의 : 02) 6365-1888

고요한 종소리

조선 시대 천주교 박해를 역사적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사영이 '백서'를 쓰게 된 배경과 그의 아들 경한, 그리고 정하상 성인의 이야기가 담담히 펼쳐집니다.

저　자 : 장정옥
가　격 : 1만3천8백 원
출판사 : 성바오로
문　의 : 02) 945-2972

박해 시대 숨겨진 이야기들2

이 책은 200년 전의 일을 마치 현시점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교회사 전문가인 서양자 수녀는 수십 년 간 조사했던 사회·문화적 자료들을 이 책에 풍성히 담아냈습니다.

저　자 : 서양자 수녀
가　격 : 2만 원
문　의 : 02) 2266-7153 분도출판사

차쿠의 아침(소설 최양업)

최양업 신부가 주인공인 이 소설은 고증된 교회사 사료(史料)를 기반으로 최양업 신부의 인간적인 면모와 신앙, 김대건 신부와의 뗄 수 없는 깊은 우정 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자 : 이태종 신부
가　격 : 1만4천 원
출판사 : 바오로딸
문　의 : 02) 944-0807

[영화] 두 교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보수성향의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로 간의 이념의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장　　르 : 드라마
관　　람 : 12세 관람가
다운로드 : 넷플릭스

※ 공연 및 신간 게재 문의 ☎ 031) 242-8081